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와 포퍼의 반증가능성*

양 준 익 | 경희대학교

본 논문은 바스케츠와 L&M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주의 학자들의 반론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주관적 견해나 가치관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 대신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를 평가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를 과학적 이론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현재 현실주의 논의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냉전의 종식 이후 확산되고 있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현실주의 이론들을 종합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교통신리일 것이다. 누군가가 그와 같은 작업에 성공하지 않는 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사이버과학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제정치이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을 논리적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절감하면서도 본 논문은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현실주의 패러다임, 포퍼의 반증가능성, 냉전의 종식과 현실주의 이론의 확산

* 본 논문을 빌어 평소 저자에게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 계신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본 논문의 초고를 읽어 주시고 완성도를 높여주신 박수현, 박시중, 정진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I. 서론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직후,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 듯 보였다.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인과적 분석에 기초하여 세계정치의 과학적 설명과 예측을 강조하였던 대부분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에게 냉전의 종식은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패권을 놓고 다투는 초강대국이 평화롭게 권력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시각이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평화로운 붕괴와 소련의 자발적 권력포기는 그 어떤 현실주의 이론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충격적 사건이었다. 저비스(Jervis 1991/92, 39)와 같은 학자는 1989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역사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설명하면서 당시의 충격과 당혹감을 완화시키려 노력하였다. 냉전의 종식 직후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논문들은 봇물처럼 쏟아졌고 현실주의 이론은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사망선고는 적어도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스웰러와 월포스(Schweller and Wohlforth 2000, 60-61)는 냉전의 종식이 현실주의 이론에 타격을 입혔다는 생각은 현실주의 이론 자체와 냉전의 종식을 잘못 이해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실주의 이론의 재해석 또는/그리고 냉전의 재해석은 냉전의 종식이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상현상(anomaly)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카리아(Zakaria 1992/93, 21)는 현실주의 시각이 자유주의, 마르크시스트, 평화주의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캠프로부터 냉전의 종식 이후 쏟아졌던 유사한 맹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로 유지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고 둔과 슈미트(Dune and Schmidt 2003, 115, 169)는 “현실주의의 조종은 이미 1960년대의 과학적 접근에 의해, 그리고 1970년대의 초국가주의에 의해 여러 번 울렸지만 결국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좀 더 견고한 형태의 현실주의(공통적으로 ‘신현실주의’ Neo-realism라 명명되는)의 등장을 목도하게 되었고”, “21세기가 현실주의의 세기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과 슈미트가 암시하듯 냉전의 종식을 통해 (월츠의) 신현실주의보다 더 '견고한' 형태의 현실주의 이론이 탄생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전의 종식이 현실주의 이론의 종말보다는 오히려 확산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스나이더(Snyder 2002, 149-150)의 구분법에 따르면 현재 국제정치학계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세 종류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몇몇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그리고 "신고전적(neoclassical)", "구체적(specific)", "일반적(general)" 현실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이렇게 다양한 형용사를 가진 현실주의 이론들이 종종 서로 상충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어떤 이름이라도 장미는 장미라는 것이 라스벤(Rathbun 2008)의 관점이다. 즉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이 모든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핵분열과 같은 현실주의 이론의 확산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끊임없는 이론수정과 역사적 재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1997년에 바스케즈(Vasquez 1997)는 라카토쉬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퇴보적 연구프로그램(degenerating research program)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고 1999년에 르그로와 모라브식(Legro and Moravcsik 1999, 9; 이하 L&M)은 패러다임이 개념적으로 생산적이라면 적어도 일관성(coherence)과 특수성(distinctiveness)이라는 두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최근의 현실주의 이론들은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바스케즈와 L&M의 주장은 내용면에서 설득력이 매우 높지만 논쟁의 소지가 많은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sophisticated falsificationism)"나 일관성과 특수성이라는 잣대를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현실주의 이론가들에게 강력한 반론의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본 논문은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naive falsificationism)"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록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에 의해 포퍼의 반증주의가 "소박한 반증주의(naive falsificationism)"로 격하되었지만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필요한 것은 끝없는 논쟁을 생산해 낼 가능성이 높은 라카토쉬의 과학적 잣대가 아니라 단순하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포퍼의 기준이란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사실 반증가능성에 대한

포퍼의 논의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시되어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포퍼의 통찰력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른 기준은 몰라도 적어도 포퍼의 반증가능성의 잣대로 보았을 때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과학적 이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현실주의는 개개의 현실주의 이론으로는 반증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과학적 이론의 지위를 고집하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현실주의 이론들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견해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제정치이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을 논리적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하나의 답이 존재할 것만 같은 물리학을 전공하는 막스 플랑크(Max Planck)조차도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설득을 통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라 반대자들이 결국은 죽어 버리기 때문이며, 또 (새로운) 사실에 익숙해 있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Kuhn 1970, 151). 이와 같은 상황을 절감하면서도 본 논문은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바스케즈와 L&M의 현실주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에서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로

1. 라카토쉬의 퇴보적 연구프로그램과 현실주의 패러다임

바스케즈는 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이론의 변천사를 통해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퇴보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첫

째, 이론적 발전의 변화무쌍한(변덕스러운) 특성(protean character); 둘째, 반증되었을 경우 패러다임을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이론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함; 셋째, 결점을 설명하기 위한 계속되는 보조가설; 넷째, 강력한 연구 결과의 부족이 그것이다(Vasquez 1997, 899). 일찍이 라카토쉬는 특정 연구프로그램이 퇴보적(degenerating)이 아니라 발전적(progressive)이라면 1) 이제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고 2) 새로운 이론이 증명되면서 경쟁하는 이론보다 더 많은 실증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바스케즈는 라카토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다(Vasquez 1997, 901; Lakatos 1970, 118). 바스케즈는 비록 짧지만 간결하고 명쾌한 분석을 통해 세력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들이 왜 라카토쉬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지 못한가를 증명하고 있는데 현실주의 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최근의 현실주의 학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스케즈에게 반발하고 있는 학자는 월트인데 그는 바스케즈의 거의 모든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월트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바스케즈가 세월이 지나고(now-dated) 최근의 과학 철학, 역사 논의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라카토쉬를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논의의 틀로 삼은 것도 잘못이고, 현실주의 이론이 월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결된 연구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잘못이다(Walt 1997). 특히 월트는 자신의 위협이론(balance-of-threat theory)이 “여분의 실증적 내용(excess empirical content)”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바스케즈의 주장이 간단히 말해 틀렸다고 단언한다(Walt 1997, 934).

라카토쉬의 문제는 L&M이 선택한 일관성과 특수성의 기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L&M은 최근의 현실주의 이론들이 너무나 잦은 ‘성형수술’을 감행하여 과거의 현실주의 이론들과의 일관성도 발견될 수 없고 구성주의나 자유주의 시각등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성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라카토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Legro and Moravcsik 1999). 탈리아페로(Taliaferro 2000, 178-179)는 L&M이 선택한 라카토쉬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s)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자들도 새로운 예측의 정의에 대해, 보조가설의 보호지대(protective belt)의 범위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발전적 또는 퇴보적 연구전환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바스케즈나 L&M이 선택한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는 현실

주의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라카토쉬의 기준은 너무나 많은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끝없는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정 연구프로그램이 발전적인가 퇴보적인가를 현실적으로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치고 자신들의 이론이 새로운 사실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실증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라카토쉬를 대신할 만한 과학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2. 포퍼의 반증가능성에 대한 재조명

일찍이 길핀(Gilpin 1986, 304)은 "정치현실주의는 그 어떤 엄격한(strict)한 의미의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철학적 성향(disposition)과 가정들(assumptions)의 모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약 다른 많은 현실주의 학자들도 길핀의 생각에 동의하였었다면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졌던 세 번의 거대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덜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주의 학자들은 현실주의 이론이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견지하여 왔고, 적어도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국제정치에 존재한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몇몇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과거와 달리 길핀과 매우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엘만과 엘만(Elman and Elman 1995, 183)은 1648년부터 1945년까지의 유럽역사 분석을 통해 현실주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역사가 슈로더(Paul Schroeder)를 상대로 신현실주의는 이론이 아니라 접근법(an approach) 또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신고전적 현실주의 학자 중의 하나인 스웰러(Randall Schweller)는 정치현실주의는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이상이며 그것은 과학일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이며 세계관이라 강조한다(Schweller 1997, 127).

사실 과학과 철학은 '결정적' 차이가 있고 다른 잣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철학, 다른 사람은 과학, 또 다른 사람은 철학인 동시에 과학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시킬 수도 있다. 만약 국제정치이론이 철학에 가깝다면 무엇 때문에 과학적 형태의 이론을 만들려고 에너지

를 '낭비' 해야 하며 상상력이나 창조성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국제정치학자들도 헤겔의 역사철학과 같은 '웅장한' 이론을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일찍이 헤겔은 세계사는 자유의 의식에서의 진보이고 역사는 이성의 교지(cunning of reason)를 통해 발전하며, 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큰 틀에서 보면 이성의 교지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진리와 자유의 현현(顯現)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헤겔의 역사철학은 그 어떤 국제정치 이론보다 스케일이 크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논리적'이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 1, 2차 세계대전 등을 비롯한 인류의 모든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이성의 교지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모겐소가 권력의 개념으로 모든 국제정치를 설명하려 하였듯이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헤겔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헤겔의 역사철학이나 불교의 카르마와 같은 개념은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그럴듯한 설명을 사후(事後)에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전(事前)에 예측할 수는 없다. 즉 이라크 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성의 교지(狡智: cunning of reason)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의 '악연'이 어떻게 이생에서 표출되고 있는지를 매우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¹⁾ 하지만 철학자나 종교가들에게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성의 교지나 카르마의 개념으로 예측해 보라고 하면 그 자신감은 금방 사라지거나 빛나간 예측을 하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철학자나 종교가가 있을까? 사후(事後)에는 항상 '논리적'이고 '완벽한' 설명을 제공할지만 사전에는 그 어떤 반증될 수 있는 예측도 하지 않거나, 예측을 하더라도 틀리기에 철학이나 종교는 과학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과학은 언제든지 반증이 가능한 법칙을 말해주고 있고 예측이 일관되게 증명된다. 만약 특정 예측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그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지 않았거나 법칙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의 경계가 뚜렷이 구별될

1) 여기서 헤겔의 철학이나 불교의 교리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특히 불교나 기독교 등의 종교를 깊이 이해하면서 세상을 위의 묘사와 같이 단순하게 설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본 논문의 주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예를 사용하였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하지만 포퍼가 반증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지 않았더라면 과학과 철학의 명확한 경계선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도 많은 국제정치이론이 과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포퍼가 말하는 사이비과학(pseudo science)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증가능성에 대한 포퍼의 통찰력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포퍼의 반증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원전을 거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은 포퍼의 '깨달음'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보고자 한다.

나는 마르크스, 프로이드, 애들러의 추종자인 나의 친구들이 이들 이론의 몇 가지 공통점, 특히 외견상의 설명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이론은 그 이론이 설명하려는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 어느 이론도 연구를 하다 보면 지적 전환 내지는 깨달음을 주는 듯하다. 아직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눈을 밝혀 주는 것이다. 한번 깨달으면 그 이론을 증명하는 사건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은 이론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다. ... 추종자는 마르크스의 역사 해석을 증명해주는 증거를 신문의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발견하게 된다. ... 정신분석가들은 그들의 이론이 끊임없이 임상실험에서 증명된다고 강조한다. ... (여기서) 나는 둘(프로이드와 애들러의 이론) 중 하나의 이론이라도 인간의 행위 중 어떤 것이든 해석할 수 없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항상 맞고 증명되는 바로 그 사실이 추종자의 눈에 그 이론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강점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Popper 1963/1992, 35).

사실 지금 와서 포퍼를 재조명하면 시대착오적이고 진부한 논의를 전개한다고 비판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퍼의 '깨달음'은 위대한 깨달음이고 국제정치학자들은 진지하게 그의 통찰력을 다시 한 번 국제정치이론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헤겔이나 다른 철학자들의 논의를 과학적 이론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이론이 신빙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철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비이성과 광기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성의 교지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확산, 유럽통

합, 민족주의, 심지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까지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현상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헤겔의 역사철학을 '증명' 해 주는 사건들로 가득 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 헤겔의 역사철학이 틀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낼 수 없다. 유럽의 평화도 아프리카에서의 내전도 그 어떤 광기나 평화도 헤겔의 주장을 '증명' 해 줄 뿐이지 반증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포퍼는 이와 같은 이론을 사이비과학이라 지적인 것이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교적 교리도 증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반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를 '과학화' 시키려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서도 프로이드, 애들러 그리고 헤겔 등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성향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1996년에 출판되어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과 둔과 슈미트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 헌팅턴은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를 문명 패러다임이 명쾌히 분석한다고 하는 사실은 1993년의 6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반추해보다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예를 든다. 다음은 몇 가지 짧은 예이다.

- *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크로아티계, 이슬람계, 세르비아계가 벌이는 격화 일로의 전투
- *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러시아 군대와 무자헤딘(mujahedeen) 게릴라 사이의 전투
- * 망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독일의 새로운 헌법
- * 한층 높아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NATO 합류 가능성(이회재 1997, 42-43)²⁾

21세기도 현실주의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둔과 슈미트도 아프리카에서의 전쟁, 인도, 파키스탄 긴장, 중국에 대한 우려, 유고내전에서 벌어졌던 전쟁 범죄 등의 예를 들어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지속적 적실성을 '증명' 한다(Dune and Schmidt 2003, 167).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예에서 우리는 포퍼의 통찰력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헌팅턴은 신문의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자신의 문명 패러다임을 증

2)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헌팅턴의 번역본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고 둘과 슈미트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주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건들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고 내전, 걸프 전쟁 등이 문명충돌이 아닌 권력과 이익 충돌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으며 유럽통합,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확산 등의 역사적 사실은 둘과 슈미트의 시각에 반하는 '증거'라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입장에서 보면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는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발전적인가, 여분의 실증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심(core)인가 등의 미묘한 가치판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이론이 반증되었는지, 아니면 보조가설에 의해 구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특정 이론이 처음부터 반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헤겔의 이성의 교지나, 불교의 카르마 등의 개념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스케츠와 L&M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실주의 학자들조차도 포퍼의 반증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새로운 주장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반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 이론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이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학자는 거의 없는 것이다. 물론 포퍼의 반증가능성 기준은 라카토쉬가 지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반증가능성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모든 논의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개개의 이론이로서든, 일련의 이론의 묶음으로서든 과학적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반증가능성의 기준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III. 포퍼의 반증가능성으로 바라 본 현실주의 패러다임

1. 미아리 학파(?)에 대한 논의

만약 현실주의 학자들이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과학적 지위에 더 이상 '집착' 하

지 않는다면 포퍼의 반증가능성 논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주의가 철학 또는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과학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반증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라카토쉬는 그 어떤 이론도 하나의 이론으로는 반증될 수 없고 일련의 이론들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특정 이론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보조가설이나 이론수정을 통하여 나중에 올바르게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Lakatos 1970). 바스케즈는 라카토쉬의 이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하나의 이론도 반증가능성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즉 하나의 이론이라도 처음부터 반증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라 할 수 없고 일련의 이론들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과학적 이론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든 패러다임 전체의 차원이든 반증이 가능해야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이 반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이론들 또는 전체 패러다임이 반증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과 예측을 하여 놓고 특정 사건이 벌어지면 A, 벌어지지 않으면 B, 그리고 애매한 상황이면 C가 맞다면 일련의 이론들 또는 패러다임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특정 이론이 반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상의 예를 들어 보자.

유명한 점쟁이들이 모여 있는 미아리 학파에서 네 명의 점쟁이가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점쟁이 A는 2011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고, B는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 하고, C는 남북한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고, D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2011년에 남북한이 통일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과학적' 입장에서 개개의 점쟁이와 미아리 학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상식적 차원에서 점쟁이 B와 D는 틀린 예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남북한 관계가 '원래'는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었는데 신령님의 자비로 인해 남북한 통일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보조가설(변명)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A는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C 또한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C와 D는 처음부터 과학적 예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예측을 하였다. C는 북한이 미사일 정도만 발사해도 큰 변화를 맞이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D는 핵무기 개발 정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혀 큰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C와 D의 예언은 포퍼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비 예언이다.

복잡한 논의는 모두 차치하고, 단순하게 상황을 정리하면 A와 B만이 반증가능성 기준을 충족시켜주고 있고 B는 틀린 예언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의 점쟁이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아리 학파 전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 명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미아리 학파 전체가 옳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이 틀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것인가? 만약 누군가 미아리 학파가 틀렸다고 하면 학파 내의 비중이 크지 않은 B와 D의 예언이 틀렸다고 하여 학파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하지 않을까?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 미아리 학파를 반증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는 크게(작게)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다른 그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다. 미아리 학파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신들의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바스케즈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동전의 앞면이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면 당신이 진다"라는 경우에 해당되고 포퍼가 묘사하고 있는 사이비과학의 전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아리 학파의 개개의 점쟁이는 반증이 될 수 있어도 미아리 학파 전체는 반증될 수 없을 경우, 학파 전체의 차원에서 그것은 과학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구체적 이론을 논하기에 앞서 미아리 학파라는 비학문적 예를 들어 반증가능성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학문적 이론을 논하면 너무나 심각해져 '간단한'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여 그것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그것이 사이비과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과학적 이론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거론한 미아리 학파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모겐소, 윌츠, 길핀, 윌트, 스웰러, 미어샤이머 등의 현실주의 학자들이 서로 모두 다른 주장을 펼쳐놓고 특정 상황이 벌어지면 모겐소, 다른 상황에

서는 월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길핀이 옳기 때문에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사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비과학적인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월츠가 지적하듯이 한 학파라고 해서 모든 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다(Walt 1997, 934). 즉 그것이 현실주의가 되었든 자유주의가 되었든 같은 패러다임 내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학문이 발전되는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리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월츠의 견해 또한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다. 사실 삶을 살다보면 때로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은 상황이 발생한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사회과학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복수의 답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비록 월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과학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논의를 계속해서 전개시키면 그것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2. 현실주의 이론의 발전: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에 대한 논의

일찍이 모겐소(Morgenthau 1985, 31, 38)는 “권력투쟁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며 “삶, 번식, 지배에의 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의 저서 *Politics Among Nations*를 시작한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국제정치학도가 처음 배우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훈은 국제정치란 복잡해서 간단한 해답이나 믿을 만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세력균형 이론에 대해서는 “세력균형의 생명선과 같은, 몇몇 국가의 상대적 힘을 측정하는 이성적 계산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옳은지 알 수 있는 일련의 추측일 뿐이다”라고 결론짓는다(Morgenthau 1985, 22-23). 신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월츠(Waltz 1959, 16-79)의 입장에서 보면 모겐소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비과학적인 논의이다. 권력투쟁과 같은 개념을 어떻게 반증할 수 있는가? 그것이 헤겔의 이성의 교지나 불교의 카르마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모겐소의 추종자는 신문의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권력투쟁을 '증명'해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 간의 협동이나 평화는 숨겨진 권력투쟁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역설하거나 권력투쟁이 현현하기 전의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투쟁을 증명하는 것은 쉽고 반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이론적 재해석과 보조가설을 통해 예외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츠는 기본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을 기초로 국제정치를 분석한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과학적이라 비판하였고³⁾ 자신의 신현실주의 이론만이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유일한 이론이라 주장하였다(Waltz 1994). 비록 수많은 학자들이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을 비판하였지만 적어도 그가 목표하였던, 즉 "이전의 현실주의 이론가들보다 엄격한 국제정치 이론을 개발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Waltz 1986, 322).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철학이나 종교적 색채가 강했던 모겐소나 니버의 작업보다는 훨씬 과학적으로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법칙/이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세력균형 이론과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월츠는 국제정치에 명백한 정치적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세력균형이론이라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의 자조체제(self-help system)이기 때문에 국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력균형을 맞추려 하고, 국제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세력균형을 향한 강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오인(misperception)과 오산(miscalculation)의 가능성이 적은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Waltz 1979). 적어도 월츠는 모겐소나 니버와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 반증이 가능해 보이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과학적 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과학적 이론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틀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의 종식은 월츠가 그렇게 자신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신현실주의 이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양극체제도 무너지고, 월츠가 가장 불안하다고 예측했던 일극체제도 그리 불안

3) 포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모조과학이 될 것이다.

해 보이지 않고, 세력균형도 월츠의 논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Gaddis 1992/93).

3.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끝없는 논쟁의 늪

이처럼 현실주의 이론 중 가장 과학적인 이론으로 보이는 월츠의 신현실주의가 냉전의 종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현실주의 학자들은 수세보다는 오히려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바스케즈나 L&M 등과 같은 학자들을 나무라고 있으며 특히 월트는 바스케즈에 대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월트는 바스케즈가 월츠를 반박하는 것이 왜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한다(Walt 1997, 933). 동시에 그는 바스케즈가 한 명의 과학 철학자(라카토쉬), 두 개의 책(월츠, 월트), 두 개의 논문(스웰러, 크리스천슨과 스나이더) 그리고 엘만과 엘만의 짧은 편지를 기초로 한 피상적 조사를 통해 오랫동안 존경받아 왔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난한다(Walt 1997). 또한 스웰러는 현실주의 학파의 "핵심(hard core)"은 월츠의 세력균형 이론이 아니라 일곱 개의 명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상대한다. 2)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에서 진행된다. 3) 국제정치의 근본적 특징은 권력이다. 4) 국제관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투쟁적이다. 5) 인류는 이성의 발전을 통해 갈등을 초월할 수 없고 평화의 과학을 발견할 수 없다. 6) 정치의 도덕의 작용이 아니며 도덕은 권력의 생산물이다. 7) 국가의 필요와 이성은 도덕과 윤리와 충돌할 경우 우선된다(Schweller 1997, 927). 여기에 피버(Feaver 2000, 166)는 L&M과 같은 학자들이 현실주의 이론이 행위의 결정(determinants)만큼이나 행위의 결과(consequences)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현실주의 학자들의 반응은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 반증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논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비록 월츠가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물론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표 주자라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과거 고전적 현실주의를

평가할 때 카아, 윌퍼즈, 니버 등의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만 모겐소를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하듯이 신현실주의를 논할 때 윌츠를 가장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한 명의 학자가 특정 패러다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를 굳이 한 명 꼽으라면 과거에는 모겐소가 꼽혔겠지만 지금은 윌츠가 될 것이다. 비록 스웰러나 윌트를 비롯한 최근의 현실주의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972년과 2005년에 실시된 통계자료는 위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된 1972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겐소가 2위를 한 도이치(25.2%)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46.7%의 압도적 득표로 국제정치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학자 1위로 뽑혔다(Vasquez 1983, 43-44). 반면 2005년도에 실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겐소는 19위로 떨어졌고 윌츠는 코헤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현실주의 학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길핀은 10위, 윌트 본인은 2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Peterson and Tierney 2005, 19). 물론 올간스키나 쿠글러 또는 스웰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논의를 왜 다른 학자가 아닌 윌츠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은 이제 와서 의도적으로 윌츠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윌트의 바스케즈에 대한 비판은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스케즈가 길핀, 올간스키, 그리고 쿠글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다른 저서와 논문에서 이미 다루고 있고 짧은 논문에서 효율적으로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윌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Vasquez 1997, 902). 또한 중요한 것은 바스케즈가 윌츠의 세력균형만 다룬 것도 아니고 세력균형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비록 짧지만 매우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스케즈가 과학철학에 대해서도,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내용 중심으로부터 누가 더 책을 많이 읽고 인용했느냐의 논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논쟁의 핵심을 흐려놓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바스케즈를 '모독'하는 비판이 될 것이다. 비록 바스케즈가 윌트의 모든 작업을 살펴보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현실

주의 이론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여 몇몇 학자들만을 인용한 것이 아닌 것은 그의 학자적 작업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신의 최신 연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바스케즈를 비판하는 월트 본인도 단 하나만의 바스케즈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논쟁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월트의 바스케즈에 대한 반론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스웰러의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스웰러가 논하는 거의 모든 명제는, 본인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듯이, 모겐소와 니버 등의 고전적 현실주의 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웰러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자는 주장밖에 되지 않을 위험을 안고 있다. 월츠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들어난 고전적 현실주의의 논의를 다시 끌어들이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시도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스웰러는 반증이 가능해 보이는 몇몇 가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논하고 있는 일곱 개의 명제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상식적 이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개인적 세계관 또는 철학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논의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과학적 패러다임을 지향한다면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그룹의 형태를 띠고, 국제정치에서 권력이 중요하고, 도덕이나 윤리와 권력이 충돌할 때 적어도 아직까지는 권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논의가 필요치 않은 '상식'이다. 모겐소가 "권력투쟁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라고 역설하였을 때, 니버(Niebuhr 1960, xx)가 "그들(도덕주의자들)은 인간 상상의 한계와 편견과 열정에 쉽게 굴하는 이성과, 그 결과로서 계속되는, 특히 집단행동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이기심이 아마도 인간의 역사 끝까지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만들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을 때 그것은 비단 현실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5, 142)가 권력추구가 자유주의적 이상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권력을 더 우선시할 것이고 역사적 기록이 그와 같은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해준다고 하였을 때 그와 같은 주장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겐소, 니버, 미어샤이머의 주장이 대략적으로 맞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증이 가능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애매모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쟁이도 장소, 사건, 시기 등의 세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예언을 하면 대략적으로 맞아 보인다. 예를 들어 2004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점쟁이가 있었고 실제로 인도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사람들은 그 점쟁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점쟁이가 애초에 사건과 시기만을 말하였지 인도라는 구체적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볼 때 1년 안에 지구촌에서 '거대한' 지진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100%이다. 따라서 점쟁이의 예언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옳은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지배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수 있고 항상 옳은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이론은 인간이 지배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또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지배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설명해주고 예측해 주는 것이다. 분명 월슨이나 간디가 보여주고 있는 지배에의 의지는 히틀러나 징기스칸의 그것과 다르고,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에의 의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이론은 왜 그것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설명하고 예측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니버가 논하는 "집단행동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이기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집단행동에서 '비합리적 이기심'이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합리적 이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이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났던 '비합리적 이기심'과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표출되고 있는 '비합리적 이기심'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쟁과 같은 폭력적 형태가 아닌 평화적 사회적 갈등은 그것이 인간의 역사 끝까지 존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국가들이 자유

주의 가치나 특정 이상보다는 권력을 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몇 천년동안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습이나 제도로 받아들여졌던 결투나 노예제도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 것을 보면 국가의 행동양태가 영원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비현실적' 예언이 될 것이다. 전간기의 이상주의 학자들이 평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교육의 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었다면, "인류는 이성의 발전을 통해 갈등을 초월할 수 없고 평화의 과학을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현실주의 학자들 또한 '비현실적'으로 비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제정치학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물론 스웰러가 단순히 고전적 현실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처럼 묘사하거나 월트가 바스케즈를 '무리하게' 비판만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평가가 될 것이다. 월트나 스웰러 모두 반증이 가능해 보이는 자신들만의 세력균형 이론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과학적 이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이론이 월츠의 이론과는 상당히(?) 다르고 서로 간에도 상충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트는 자신의 위협균형이론(balance-of-threat theory)이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을 포함하는 향상된 현실주의의 이론이라 주장하고 있고, 스웰러는 자신의 이익균형이론(balance-of-interests theory)이 월츠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refine)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Walt 1997; Schweller 1997). 월트는 자신의 위협균형이론이 국가들이 힘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상대로 균형을 이루는 현상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지 않더라도 지리적 근접성(proximity), 공격적 의도, 위협적 공격력 확보 등의 이유로 더 위협이 되어 보이는 국가에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Walt 1997, 933). 하지만 국가들이 힘에 균형을 맞추는 것과 위협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만약 영국의 힘이 가장 강하지만, 독일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는 프랑스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독일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 경우, 월츠는 영국, 월트는 프랑스를 지목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엄연히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 두 이론을 하나의 이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을 독립적 이론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모겐소나 월츠의 세력균형이론과 연관 지어 하나의 이론체제에서

바라보면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스웰러의 이익균형이론도 하나의 독립적 이론으로 바라보면 바스케즈가 비판하는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웰러는 기존의 대부분의 현실주의 이론들과는 달리 세력균형보다는 편승(bandwagoning)이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더 보편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은 역사가 슈로더(Schroeder 1994)가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을 비판하면서 1648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가장 지배적 전략은 세력균형이 아니라 잠복(hiding), 초월(transcending), 편승(bandwagoning)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스웰러의 이론이 월츠나 월트보다는 현실주의 이론의 비판자인 슈로더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컬해 보인다. 하지만 스웰러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이익균형이론은 국가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위협받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Schweller 2004). 스웰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의 생존이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세력균형을 택하기 보다는 편승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편승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대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Schweller 1994, 93; 1997, 929). 그렇기 때문에 월츠나 월트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자주 편승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 스웰러의 주장이다. 스웰러의 주장도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매우 논리적이다. 특정 국가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세력균형을 이룰 이유가 없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편승정책을 택할 것 이란 것이다. 스웰러는 월츠와 월트의 이론은 국가들이 위협받았을 경우를 다루고 있고 자신의 이론은 위협받지 않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연구결과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스웰러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월츠가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들이 위협을 받든 그렇지 않든 세력균형을 향한 강한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월츠와 스웰러의 예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현실주의 학자들은 유사한듯하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유사한 것 같은 상당히 복잡한 세력균형 이론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천슨과 스나이더, 그리고 엘만과 엘만의 논의를 더하게 되면 그 복잡함은 극에 달하게 된다. 크리스천슨과 스나이더(Christensen and Snyder 1990)는 다극체제의 경우 세력균형이 얽힘(chain-ganging)이나 회피(buck-passing)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엘만과 엘만은 길핀과 다양한 현실주의 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세력균형이 국가들의 일반적 전략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패권적 시기가 세력균형이

론가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상황이고, 국가들은 평화적 조정, 국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 동맹형성, 예방전쟁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모든 전략이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Elman and Elman 1995, 186-87). 이에 대해 바스케즈나 L&M은 도대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현실주의 이론이 모순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즉 완벽한 비이성, 자기희생적 이타주의, 국가들 간의 완벽한 이익조화 등의 거의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Legro and Moravcsik 1999, 7).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개의 현실주의 이론들의 모순점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그와 같은 시도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모겐소를 비판하면 월츠, 월츠를 비판하면 길핀, 길핀을 비판하면 월트, 월트를 비판하면 스웰러, 스웰러를 비판하면 미어사이머를 거론하면서 왜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틀렸냐고 묻는 식의 논의는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골을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것이고 과학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어떤 특정 이론을 반박하여도 그 이론이 현실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패러다임 전체로는 반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개개의 이론은 과학적 이론으로 보이지만 패러다임 전체의 차원에서는 결국 사이비과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력균형, 편승, 압힘, 회피, 패권안정, 일극체제의 불안정성 등의 모든 상황이 현실주의와 맞아 떨어진다면 어떻게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반증할 수 있는가? 지금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교통정리이다. 그것은 L&M과 같은 현실주의 이론의 비판가가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웰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닭장을 지키는 여우가 닭을 생각해주는(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상황이 될 것이다(Schweller 2000, 175). 언젠가 현실주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반증되었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주의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천슨과 스나이더(Christensen and Snyder 1997, 919)처럼 자신들은 신현실주의를 변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양한 현실주의 학자들의 잡다한(heterogeneous) 주장들을 융화시키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비판가들도 현실주의를 과학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비판이나 분석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과학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피버처럼 신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합리적' 논쟁을 벌이지 말자는 것과 같을 것이다.⁴⁾ 언제부터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이 국가들이 힘의 분포를 무시했을 때 그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는가? 물론 월츠는 사회화(socialization)는 국가의 특성과 행위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유도한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국가는 성공한 국가를 모방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패배하게 된다(fall by the wayside)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Waltz 1979, 76-77). 하지만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추구할 것이고 양극체제와 다극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지 국가들이 힘의 균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사실 피버 본인도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L&M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실주의 분석도 세력균형이 어떤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힘의 균형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Feaver 2000, 166). 본인들의 주요 주장이 반박될 때마다 사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고 주장한다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것이다. 비록 현실주의 학자들은 그와 같은 변론에서 모순점을 찾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어 더 이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 철학이나 종교도 사후에는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논의들을 냉전의 종식 이후가 아닌 이전에 제공했어야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미래의 국제정치에 대해 일치된(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견해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4)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은 논문분량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IV. 종교전쟁(?)의 종식을 위한 패러다임적 실용주의

L&M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피버(Feaver 2000, 165)는 L&M이 너무나 많은 현실주의 신도들을 파문시키면서 불필요한 종교전쟁을 선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현실주의 비판가들(critics of realism)은 L&M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한다(Feaver 2000, 169). 본의 아니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종교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은 처음에 종교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종교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이 국제정치를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닌 과학으로 묘사하는 것을 멈추기를 희망하지만 그와 같은 견해를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피버가 말하는 종교전쟁을 격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주의/실증주의를 존중해 주고 싶다. 다만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도 이상주의/탈실증주의 패러다임 등의 다른 시각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와 달리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도 지적 관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offensive realist)로 잘 알려진 미어샤이머는 이제 영국의 거의 모든 국제정치 이론가는 이상주의자이며 단 한명의 현실주의 이론가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그것이 이상주의가 되었던 현실주의가 되었던 국제정치학자들의 한 그룹이 패권적 담론을 추구하는 것은 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명치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최근 조언하고 있다(Mearsheimer 2005, 143, 149).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모든 이론은 제한된 설명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관점이 마치 진실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Mearsheimer 2005, 149). 월츠 이후에 가장 '극단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을 펼치고 있는 미어샤이머가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학계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 하면서 현실주의/실증주의 패러다임은 겸손함, 지적 관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 본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현실주

의 학자가 이상주의 학자들이 패권적 담론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Mearsheimer 2005, 150).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이 다른 시각 간의 관용과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피버가 말하고 있는 불필요한 종교전쟁(?)을 끝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 하겠다. L&M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학자 중 유일하게 헬만(Hellman 2000, 174)은 “순수한” 반증주의가 되었던 “세련된” 반증주의가 되었던 그와 같은 야망은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키는 기획(enterprise)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지적 에너지를 낭비시키기에 이별을 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즉 패러다임적 실용주의(paradigmatic pragmatism)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불가피하게) 항상 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acknowledgment)에 기초한 이해(understanding)라고 지적한다(Hellman 2000, 172). 본 논문은 헬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헬만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과도 잘 부합하고 양자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같은 현대물리학적 관점과도 일치한다(양준희 2008).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다르고 그 어떤 물체도 기준이 될 수 없기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였던 고전물리학적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사회과학적 언어로 풀어쓰면 정확하게 헬만이 주장하였던 내용이 될 것이다. 물론 궁극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헬만의 의견조차 상대적 관점이고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견해가 옳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상대주의를 절대적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비록 그와 같은 지적은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면 헬만이 주장하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바스케즈와 L&M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벌여

지고 있는 현실주의 학자들의 반론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관적 견해나 가치관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라카토쉬의 “세련된 반증주의” 대신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를 분석해 보았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를 과학적 이론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일찍이 루즈벨트는 미국의 관료가 베게와 같다고 하였다. 즉 베게는 한 쪽을 눌러 놓으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고, 또 튀어 오른 곳을 누르면, 또 다른 쪽이 튀어 오른다. 모겐소를 공격하면 월츠가 울다고 하고, 월츠를 비판하면 왜 월트나 미어샤이머를 분석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현재 상황은 베게의 비유와 유사하다. 지금 현실주의 패러다임 전체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교통정리이다. 근본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현 상황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과학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사실 본 논문은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적어도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과학적 이론으로 묘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해 설득력 높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굳이 자신들의 이론을 과학적 이론이라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결정론적 가설들을 제시하여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현실주의/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자신들의 이론만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주의/탈실증주의를 ‘비과학적,’ ‘비현실적,’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고백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성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끝까지 고집하였던 웬트조차 최근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듯이’ 국제정치는 적어도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기초한 결정론적 법칙이나 이론을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Wendt 2006; 양준희 2008). 특히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미래의 모든 것이 예측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결정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국제정치도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현실주의/실증주의 학자들이 있다면 피버가 지적하고 있는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뜻에서 그와 같은 시각을 존중해 주고 싶다. 하지만 본 논문은 앞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상대방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비판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보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어샤이며와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도 지금 와서는 패러다임 간의 ‘관용’과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논문은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덜 벌어지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08년 4월 20일

심사일 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13일

참고문헌

- 양준희. 2008. “양자물리학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메시지: 웬트의 양자역학과 양자의식 가설 논의를 넘어.”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89-115.
- 이희재 옮김.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하영선 외 옮김. 2003.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 Brooks, Stephen G. 1997. “Dueling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Summer), 445-477.
- Brooks, Stephen G. and Wohlforth, William C. 2000/01. “Power,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Winter), 5-53.
- Christensen, Thomas J. and Snyder, Jack. 1990.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Spring), 137-168.
- _____. 1997. “Progressive Research on Degenerate Allia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919-922.
- Copeland, Dale C. 1996. “Neorealism and the Myth of Bipolar Stability: Toward a New Dynamic Realist Theory of Major War.” *Security Studies* 5, 29-89.
- Elman, Colin, Elman, Miriam Fendius, and W. Schroeder, Paul. 1995. “Correspondence, History vs. Neo-realism: A Second Look.” *International Security* 20(Summer), 182-195.

- English, Robert D. 2002. "Power, Ideas, and New Evidence on the Cold War's End." *International Studies* 26(Spring). 70-92.
- Feaver, Peter D. 2000.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Or Was Anybody Ever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 No. 2. 165-169.
- Gaddis, John Lewis. 1992/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Winter). 5-58.
- Gilpin, Robert G. 1986.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laser, Charles L. 1994/95. "Realists as Optimists." *International Security* 19(Winter). 50-90.
- _____. 2003. "Structural Realism in a more complex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403-414.
- Hellman, Gunther. 2000.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Or Was Anybody Ever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 No. 2. 169-174.
- Jervis, Robert. 1991/92.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International Security* 16(Winter). 39-73.
- _____. 1998. "Realism in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Autumn). 971-991.
- Kapstein, Ethan B. 1995. "Is realism dead? The domestic sourc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Autumn). 751-774.
- Kramer, Mark. 2001. "Realism, ideolog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a reply to William Wohlforth."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119-130.
- Krauthammer, Charles. 2002/03. "The Unipolar Moment Revisited." *The National Interest*. 5-17.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phan, Charles A. 1998. "After Pax Americana: Benign Power,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Sources of Stable Multipolarity." *International Security* 23(Fall). 40-79.
- Labs, Eric J. 1997.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Security Studies* 6(Summer). 1-49.
- Lakatos, Imre.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yne, Christopher. 1993. "The Unipolar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17(Spring). 5-51.
- Legro, Jeffrey W. and Moravcsik, Andrew. 1999. "Is Anybody Still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Fall). 5-55.

- Lyne, Christopher. 2006. "The Unipolar Illusion Revisited: The Coming End of the United States' Unipolar Moment." *International Studies* 31(Fall). 7-41.
- Mearsheimer, John J. 1995. "A realist Reply." *International Security* 20(Summer). 82-93.
- _____. 2005. "E.H. Carr vs. Idealism: The Battle Rag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 139-152.
- Morgenthau, Hans J. 198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 Niebuhr, Reinhold.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Parent, Joseph M, Bafumi, Joseph, Kupchan, Charles A. and Trubowitz, Peter L. 2008. "Correspondence of Polarity and Polar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33(Summer). 170-173.
- Peterson, Susan. and Tierney, Michael J. 2005. "Teaching and Research Practices, Views on the Discipline, and Policy Attitud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Faculty at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Williamsburg VA: College of William and Mary.
- Popper, Karl R. 1963/1992.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 Rathbun, Brian. 2008. "A rose by Any Other Name: Neoclassical Realism as the Logical and Necessary Extension of Structural Realism." *Security Studies* 17. 294-321.
- Rose, Gideon. 1998. "Neoclassic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51. 144-172.
- Rosecrance, Richard. 2001. "Has Realism Become Cost-Benefit Analysis?" *International Security* 26(Fall). 132-154.
- Schroeder, Paul. 1994.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19(Summer). 108-148.
- Schweller, Randall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Summer). 72-107.
- _____. 1997.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927-930.
- _____. 2000.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Or Was Anybody Ever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 No. 2. 174-178.
- _____. 2001.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Order Revisited." *International Studies* 26(Summer). 161-186.
- _____. 2004. "Unanswered Threats." *International Studies* 29(Fall). 159-201.

- Schweller, Randall L. and Wohlforth, William C. 2000. "Power Test: Evaluating Realism in Response to the End of the Cold War." *Security Studies* 9(Spring). 60-107.
- Snyder, Glenn H. 2002. "Mearsheimer's World- 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27(Summer). 149-173.
- Taliaferro, Jeffrey W. 2000. "Correspondence: Brother, Can You Spare a Paradigm (Or Was Anybody Ever a Realist?)." *International Security* 24, No. 2. 178-182.
- _____. 2006. "State Building for Future Wars: Neoclassical Realism and the Resource-Extractive State." *Security Studies* 15. 464-495.
- Vasquez, John A. 1983. *The Power of Power Politics: A Critique*.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899-912.
- Walt, Stephen M. 1997.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931-935.
-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_____. 1986.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Response to My Critics."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he Valid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he New York Hilton.
- Wendt, Alexander. 2006.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Stefano Guzzini and Anna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 Wohlforth, William C. 1999.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4(Summer). 5-41.
- Zakaria, Fareed. 1992/93. "Is Realism Finished?"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1-31.

Political Realism as a Scientific Theory and Popper's Falsification

Chun Hee Yang |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s of the realists who rebut Vasquez's and L&M's (Legrow and Moravcsik) criticisms of the realist paradigm. Observing the proliferation of realist theori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Vasquez and L&M argue that the realist paradigm has lost its distinctiveness and coherence and become a degenerating research program. However, realists strongly disagree with Vasquez's and L&M's assessments of political realism. This article essentially agrees with Vasquez's and L&M's judgements of political realism. However, instead of applying Lakatos's "sophisticated falsificationism" to evaluate the realist paradigm, it goes back to Popper's "naive falsificationism" to show that the realist paradigm fits the characteristics of pseudo-science that Popper points out. While each individual realist theory may look falsifiable, the realist paradigm as a whole cannot be falsified, therefor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pseudo-science. What political realism now needs more than anything is traffic coordination that will sort out or combine various and often conflicting theories of political realism which try to count every world event as confirming evidence of political realism.

Ultimately, this article does not believe that the realist paradigm, or any other paradigm for that matter, would be able to produce "scientific" theories that would not only be able to explain but also predict future events of world politics. Modern physics such as quantum mechanics tells us that human behavior is not deterministic as Newtonian physics might hope to believe, and the sooner the realists/positivists give up the hope of offering "scientific" theories that will explain and predict world events, the better we will be in offering various insights that will deepen our understanding of global politics.

Keywords: the realist paradigm, Popper's falsification, proliferation of realist theories